

문명 확인국어 4주차 테스트

[어휘와 한자]

01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옳은 것은?

정일이는 자기가 곧 돌아올 것을 말하고, 그때는 어디든지 마음 가는 곳으로 같이 전지할 작정이니 그런 사위스러운 생각은 하지 말고 같이 힘 있게 살아 보자고 달래었다.

《최명익, 무성격자》

- ① 병으로 인하여 몸이 파리하고 기운이 없다.
- ② 어쩐지 불길하고 꺼림칙하다.
- ③ 언행이 경망하고 좀스러운 데가 있다.
- ④ 쌀쌀하고 매섭다.

0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칠보의 어머니 우산택과 정화 무당은 한결같이 비손만 하고들 있었다.
- 비손: 신에게 손을 비비면서 소원을 비는 일
- ② 어머니는 비설거지를 하러 나가는지 방문을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렸다.
- 비설거지: 비가 오려 할 때 비를 맞혀 깨끗이 할 물건을 내보내는 일
- ③ 숲의 이미지는 사부자기 제 마음속에 연두, 초록, 파랑의 색채로 물들었습니다.
- 사부자기: 별로 힘들이지 않고 살짝
- ④ 손자 녀석이 하도 처대기에 할미로서 야단 한 번 친 걸 가지고 눈을 흘기는 건 또 무슨 새통이 짓인가
- 새통이: 알뜰고 방정맞은 짓. 또는 그런 사람.

03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썰그러지다: 물체가 한 쪽으로 배뿔어지거나 기울어지다.
- ② 설면하다: 자주 만나지 못하여 좀 설다. 정답지 않다.
- ③ 손방: 아주 할 줄 모르는 솜씨
- ④ 숙지다: 어떤 현상이나 기세 등이 차차 거세지다.

04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고통을 꼭 참고 억누르다. 분노를 눌러서 가라앉히다.
<용례> 선생님은 분노를 () 학생들에게 잘잘못을 얘기하기 시작하셨다

- ① 아릅차고는
- ② 애바르고는
- ③ 안추르고는
- ④ 악비나고는

05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은근히 동정하는 마음.
<용례> 그녀는 일찍이 부모를 잃은 조카를 보면 ()이 생겨서 더 잘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 ① 알심
- ② 양살
- ③ 암상
- ④ 어름

06

밑줄 친 낱말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타지에서 혼자 어리마린한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건 위험해.
- ②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애면 사람을 잡는데?
- ③ 애들이야 잘 어르면 대부분 말을 듣지.
- ④ 퇴근까지 삼십 분 정도 남았지만 일을 새로 시작하기엔 어지빠르다.

07

㉠~㉣에 들어갈 단어들로 바르게 묶인 것은?

- 승호는 (㉠) (이)라서 먹는 양이 적다.
- 국익에 상관없이 (㉡) 노릇만 하는 국회 의원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상인은 (㉢)에게 담타기를 씌우고 속으로 좋아하였다.

	㉠	㉡	㉢
①	거수기	고삭부리	내미손
②	내미손	고삭부리	거수기
③	내미손	거수기	고삭부리
④	고삭부리	거수기	내미손

08

다음 중 우리말의 뜻풀이가 맞지 않은 것은?

- ① 개차반: 행세가 더러운 사람. 또는 그런 일
- ② 괴판자: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
- ③ 뉘تب: 뉘뉘뉘가 천하고 더러운 사람을 얹잡아 이르는 말
- ④ 두루치기: 한 사람이 여러 방면에 능통함. 또는 그런 사람.

09

밑줄 친 낱말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마을마다 반드시 말재기가 하나씩 있어 남의 집의 작은 일을 부풀려 소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 ② 본토박이들이 떠난 자리로 뜨내기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다.
- ③ 어려울 때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다니 세상에 저런 만무방도 없을 거야.
- ④ 밤낮 자빠져서 술이나 치먹고 예불 한 번 안 모시는 너 같은 맹추 때문에 불공이 안 들어온다.

10

속담의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놓아 먹인 말: 성격이 조용하고 얌전하여 길들이기 쉬운 사람을 일컬음
- ② 낙락장송도 근본은 종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냉수 먹고 된똥 논다: 신통치 않은 재료로 실속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말
- ④ 내가 부를 노래를 사돈집에서 부른다: 내가 할 말을 도리어 상대방이 먼저 한다는 말

11

밑줄 친 속담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이라고 우리는 동네 구멍가게에서 시작했지 만 꾸준히 성장하여 현재의 대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②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오후 늦게까지 열심히 연습하는 선수들에 게 새벽 연습까지 시키려고 한다.
- ③ 그의 가정은 가난하여 돈은 없어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그 집안은 떡 해 먹을 집안이다.
- ④ 뉘옹박 차고 바람 잡는다더니, 어떻게 이런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이라 고 떠들고 다닐 수가 있는가?

12

밑줄 친 속담의 쓰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 만 밥이 목이 멘다고 작고 사소한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
- ②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남겨 둔 채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다.
- ③ 이런 밥 벌어다가 죽을 쑤어 먹을 뉘, 게으르면 일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 ④ 이미 내게서 마음이 떠난 그녀를 잡으려고 노력해 봤자 붉은 콩에서 싹이 나겠는가.

13

밑줄 친 말과 뜻이 가장 비슷한 속담은?

또한 이 사업에 사용되는 휴대폰은 버려지는 폐기기를 재활용해 사회적 약자의 생명을 구하는 폰으로 재탄생하여 환경도 지키면서 생명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 ① 배 먹고 이 닦기
- ② 망건 쓰고 세수하기
- ③ 빗 주고 뽕 맞기
- ④ 등치고 간 내 먹는다

14

한자의 독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證券 - 등권
- ② 沈滯 - 침체
- ③ 換率 - 환율
- ④ 隱匿 - 은닉

15

㉠의 한자 표기로 옳은 것은?

새로이 위원을 ㉠선거할 것도 없이 조합 집행 위원이 있으니까 곧 보고하기로 내게 다 일임해 주시오!

《김남천, 공장 신문》

- ① 選舉
- ② 薦學
- ③ 選譽
- ④ 薦譽

16

독음이 모두 맞는 것은?

- ① 檢察(검찰) - 脫稅(탈세) - 逆調(역주)
- ② 特惠(특혜) - 決裁(결제) - 昇進(승진)
- ③ 索出(견출) - 辭職書(사직서) - 背任(배임)
- ④ 發覺(발각) - 誣告(무고) - 暴行(폭행)

17

다음 글에서 유래된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어느 날 유표에게 초대받았을 때 변소에 갔다가 넓적다리에 살이 많이 붙은 것을 보고 놀랐다. 자리로 돌아온 유표가 그의 눈물을 보고 까닭을 묻자, 유비가 말하기를 “항상 몸이 안장에서 떨어지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이 모두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말을 탈 수 없으니 넓적다리 속으로 살이 생기고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늙음이 이르는데도 공업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슬플 뿐입니다.”

- ① 俯仰無愧
- ② 腴肉之嘆
- ③ 不生不滅
- ④ 首丘初心

18

아래 글의 ‘요즈음 학자’를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요즈음 학자는 우리 학문을 높일 만하다고 하지 않으며, 또 제 몸만 착하게 하려 하지 들지도 않는다. 입으로 지껄인 것과 귀로 듣기만 한 것을 주워 모아, 겉으로 말과 행동을 꾸미는 데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나는 도리를 밝힌다.” “나는 이치를 깊이 공부한다.”고 말함으로써 한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을 어지럽힌다.

- ① 불치하문(不恥下問)
- ② 사상누각(沙上樓閣)
- ③ 부화뇌동(附和雷同)
- ④ 양두구육(羊頭狗肉)

19

()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알맞은 것은?

일본은 현재 최고 기온 39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열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일본 지역 주민들은 이번엔 무더위와 싸우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더위로 인한 일사병과 열사병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1,500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록적인 폭우로 만신창이가 된 일본 서남부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폭염은 말 그대로 ()인 것이다.

- ① 不問可知
- ② 雪上加霜
- ③ 事必歸正
- ④ 小貪大失

2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식구가 이러하니 아무런들 할 수 있소. 벌어도 많이 먹으니 다시는 빌 데 없고, 굶은 지 원 오래니 더 굶으면 죽겠으니, 예, 형님 전(前)에 왔사오니 전곡간에 조금 주면, 스물 일곱 죽는 목숨 여상(呂尙)의 일단사(一簞食)요, 학철(涸轍)의 일두수(一頭水)니 적선을 하옵소서.” 두 손을 비비면서 꿇었디어 쉼게 우니, 놀보가 생각한즉.....

- ① 십시일반(十匙一飯)
- ② 삼순구식(三旬九食)
- ③ 시위소찬(尸位素餐)
-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정답 Answer

01	02	03	04	05
②	②	④	③	①
06	07	08	09	10
①	④	②	③	①
11	12	13	14	15
③	①	①	①	①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②	②

01

[정답] ②

[해설] '사위스럽다'는 '미신적이고 불길한 느낌으로 인해 어쩐지 마음에 꺼림칙한 면이 있다'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병으로 인하여 몸이 파리와 기운이 없다.'를 의미하는 말은 '비영비영하다'이다.

③ '언행이 경망하고 좀스러운 데가 있다.'를 의미하는 말은 '산망스럽다'이다.

④ '쌀쌀하고 매섭다'를 의미하는 말은 '살천스럽다'이다.

02

[정답] ②

[해설] '비설거지'는 '비가 오거나 오려고 할 때, 비를 맞아서 안 될 물건을 거두어들이거나 덮는 일'을 의미한다.

03

[정답] ④

[해설] '숙지다'는 '어떤 현상이나 기세 등이 차차 줄어지다.'를 의미한다.

04

[정답] ③

[해설] '안주르다'는 '고통을 꼭 참고 억누르다. 분노를 눌러서 가라앉히다.'를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아름차다'는 '힘에 겹다, '보람차다'를 의미한다.

② '애바르다'는 '이익을 좇아 발발게 덤비다.'를 의미한다.

④ '악베나다'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진저리가 날 만큼 싫증이 나다.'를 의미한다.

05

[정답] ①

[해설] '알심'은 '은근히 동정하는 마음' 혹은 '보기보다는 아무진 힘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② '앙살'은 '엄살을 부리며 버티고 겨루는 것'을 의미한다.

③ '암상'은 '남을 미워하고 샘을 잘 내는 잔망스러운 심술'을 의미한다.

④ '어름'은 '두 물건의 끝이 닿은 자리'를 의미한다.

06

[정답] ①

[해설] '어리마리'는 '잠이 든 등 만 등 하여 정신이 흐릿한 모양'을 의미한다. '언행이 아무지지 못하고 순진하고 어리숙한 모양' 혹은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어 몸을 제대로 놀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을 뜻하는 말은 '어리바리'이다.

[오답 풀이]

② '애면'은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 억울하게 느껴지는'을 의미하므로 바르게 쓰였다.

③ '어르다'는 '몸을 움직여 주거나 또는 무엇을 보여 주거나 들려주어서, 어린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하여 주다.'를 의미하므로 바르게 쓰였다.

④ '어지빠르다'는 '정도가 넘고 처져서 어느 한쪽에도 맞지 아니하다.'를 의미한다.

07

[정답] ④

[해설] '고삭부리'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거수기'는 회의에서 손을 들어 가부(可否)를 결정할 때, '주견(主見)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내미손'은 '물건을 흥정하려 온, 어수룩하고 만만한 사람. 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08

[정답] ②

[해설] '괴판지'는 '괴상하고 엉뚱한 행동이나 성질.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

09

[정답] ③

[해설] '만무방'은 '막 되어 먹은 사람, 예의와 염치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말재기'는 '쓸데없는 말을 지어 내는 사람'을 의미한다.

② '뜨내기'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의미한다.

④ '맹추'는 '중답지 못한 중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

10

[정답] ①

[해설] '놓아 먹인 말'은 배움이 없이 제멋대로 자라서 마구 행동하거나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11

[정답] ③

[해설] '떡 해 먹을 집안'은 귀신에게 떡을 하여 고사를 지내야 화목해질 집안이라는 뜻으로, 가족들이 화합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만 연이어 일어나는 집안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 ①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은 비록 행동은 더디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② ‘달리는 말에 채찍질’은 기세가 한창 좋을 때 더 힘을 가한다는 말이다.
 ④ ‘뒤옹박 차고 바람 잡는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떠벌리며 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2

[정답] ①

[해설] ‘물 만 밥이 목이 맨다’는 밥을 물에 말아 먹어도 잘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심한 슬픔에 잠겨 있다는 말이다.

[오답 풀이]

- ②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는 먹고살기 위해서라면 범 죄나 체면에 어긋나는 일까지도 하게 된다는 말이다.
 ③ ‘밥 빌어다 죽 쑤어 먹을 놈’은 게으른 데다 분별력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④ ‘북은 콩에서 싹이 날까’는 어떤 일이 절대 불가능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3

[정답] ①

[해설] ‘배 먹고 이 닭기’는 배를 먹으면 이까지 하얗게 닭아진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을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오답 풀이]

- ② ‘망건 쓰고 세수한다.’는 세수를 하고 나서 망건을 쓰는 법인데 거꾸로 망건을 먼저 쓰고 세수를 한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가 바뀌었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다.
 ③ ‘빗 주고 뺨 맞기’는 남을 위하여 빗을 주고는 도리어 뺨을 얻어맞는다는 뜻으로, 남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후하게 대접하고는 오히려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등치고 간 내 먹는다’는 걸으로는 위해 주는 채하면서 속으로는 해를 끼치고 자기 잇속만 채움을 이르는 말이다.

14

[정답] ①

[해설] ‘證券’의 독음은 ‘증권’이다. ‘오를 등(登)’자와 ‘증거 증(證)’자를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

[정답] ①

[해설] ‘선거’는 ‘選舉(가릴 선, 들 거)’로 적는다.

[오답 풀이]

- ② ‘薦擢’의 독음은 ‘천거’이다. ‘천거할 천(薦)’자와 ‘가릴 선(選)’자를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기릴 예(譽)’자와 ‘들 거(擧)’자를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薦擢’의 독음은 ‘천예(천거할 천, 기릴 예)’이다.

16

[정답] ④

[해설] ④의 독음은 모두 옳다.

[오답 풀이]

- ① ‘逆調’의 독음은 ‘역조’이다. ‘두루 주(周)’자와 ‘고를 조(調)’자를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汰裁’의 독음은 ‘결재’이다. ‘결제’는 ‘決濟’로 적는다.
 ③ ‘索出’의 독음은 ‘색출’이다. ‘찾을 색(索)’자와 ‘끌 견(牽)’자를 헛갈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정답] ②

[해설] ‘비육지탄(體肉之嘆)’은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 사자성어는 유비가 오랫동안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여 넓적다리만 살쥔을 한탄한 데서 유래한다.

[오답 풀이]

- ① ‘부앙무괴(俯仰無愧)’는 ‘하늘을 우러러보나 세상을 굽어보나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③ ‘불생불멸(不生不滅)’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 변함이 없음’을 의미한다.
 ④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이다.

18

[정답] ④

[해설]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겉으로 말과 행동을 꾸미는 데 불과한’ 요즈음 학자를 비판할 수 있는 말로 알맞다.

[오답 풀이]

- ① ‘불치하문(不恥下問)’은 ‘순아랫사람이나 지위나 학식이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서 모르는 것을 묻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② ‘사상누각(沙上樓閣)’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이르는 말이다.
 ③ ‘부화뇌동(附和雷同)’은 ‘쫓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의미한다.

19

[정답] ②

[해설]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얼마 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일본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설상가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불문가지(不問可知)’는 ‘묻지 아니하여도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④ ‘소탐대실(小貪大失)’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을 의미한다.

20

[정답] ②

[해설] ‘삼순구식(三旬九食)’은 삼십 일 동안 아홉 끼니밖에 먹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가난함을 이르는 말로 밑줄 친 ‘홍보’의 상황을 표현한 말로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십시일반(十匙一飯)’은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시위소찬(尸位素餐)’은 재덕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녹(祿)을 받아먹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순망치한(脣亡齒寒)’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